

의료선교의 달에 나누는

첫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

의료선교의 달 이야기 4개

- 11월 매주 월요일에는 선교이야기를 하나씩 전해 드립니다.
-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와 함께하는 채플 (1)

- S 선교사 (B 국, 치과대학 동문)
- 11월 4일 (수) 오전 8시
- 온라인 (접속은 원목실 원내메일 참조)

소망가운데 ()하며

- 이번 의료선교의 달 주제입니다.
- 팔호를 채워주세요!
- 단어, 문구,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 제출: mmcenter@yuhs.ac
- 제출 마감: 11월 30일

Mission Talk

-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한 선교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 11월 28일 오후 7시
- 온라인
- 문의: 의료선교센터 (81231)



“겉모습이 흉하든, 몸이 상했던 상관없이 저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다” 인도 한센인들의 친구였던 영국 외과 의사 선교사 Paul Brand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케냐 학생 Reachel 입니다.

2015년 4월 2일 새벽 5시 30분 케냐 가리사 대학에서 는 약 30명의 기독교인 학생

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무장한 ‘알샤바브’ 테러분자들이 들어와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하여, 22명의 학생들이 즉사했습니다. 이어 테러분자들은 학생 700명을 모은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학생 148명에게 총을 난사하였습니다. 이때 Reachel 학생은 등에 총탄 7발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Reachel은 세브란스 병원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척추에 남아있는 총탄을 제거하기 위해 왔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필요한 재활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낙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Reachel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을 떠날 때까지 약 한달 반 동안 밝은 얼굴과 미소를 한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는 별명도 지어 주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선교의달 교직원 예배’에서 Reachel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업을 마치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끔찍한 총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Reachel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Paul Brand의 이야기처럼 “겉모습이 흉하고 몸이 상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임을 Reachel의 미소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